

올 겨울 따뜻하고 건조하다...12월 '반짝 추위'

광주기상청 '11월~2025년 1월' 전망

광주·전남의 올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도 적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여름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진 탓에 '여름이 더우면 겨울에 춥다'는 속설이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의 '광주·전남 3개월 예보(2024년 11월~2025년 1월)'에 따르면 광주·전남 12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낮고, 한 겨울인 내년 1월은 비교적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12월 반짝 추위가 찾아온 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져 대체로 따뜻하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11월 평균기온이 평년(9.3~10.5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인도양과 열대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감소하고 북서태평양이 높은 해수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는 12월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이다. 기상청은 12월 평균기온이 평년(3.4~4.4도)보다 낮을 확률을 40%, 비슷할 확률을 40%로 예측하고 있다.

기상청은 바렌츠-카라해 등 북극해 해빙의 감소로 한반도가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되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 현상이 끝난 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서 추위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겨울이 더 추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내년 1월 들어서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평년보다 더 따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월 기온은 평년(1.2~2.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 40%로 예측됐다.

12월 기온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비와 눈은 비슷하거나 적을 듯 큰 추위·건조한 날씨 등 불안정한 대역·건강 관리 유의해야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대체로 기온이 높고 건조하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비나 눈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12월은 평년(24.4~41.2mm)과 비슷하겠고, 내년 1월은 평년(16.9~37.4mm)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겨울은 대체로 온화하겠지만 큰 추위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일 것"이라며 "방한 대책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고, 가뭄에 대비해 절수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는 공식이 유효는 통하지 않게 됐다.

실제 올해 광주·전남은 역대 가장 무더운 9월 날씨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평균기온도 18.2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10월에는 강수량이 135.1mm로 평년(64.7mm) 2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수일수도 12.3일로 2016년(11.7일)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의 역대 무더운 가을을 기록한 셈이다.

한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7일에는 광주·전남의 기온이 전날보다 2~3도 가량 더 떨어져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7일까지 중국 상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이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매서운 바람에 움츠린 어깨

절기상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入冬)'을 하루 앞두고 매서운 바람과 함께 기온이 푹 떨어진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거리에 시민들이 옷을 잔뜩 여민채 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나주와 장성, 구례 등 전남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 광주·전남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다만 8일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최저 4~11도, 최고 18~19도) 수준을 회복하겠다. 7일은 아침 최저기온 0~8도·낮최고기온 15~18도에 분포하겠으며, 8일에는 아침최저기온 4~12도·낮최고기온 17~20도를 보이겠다. /장혜원 기자 hey1@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 첫 재판 불출석

건강상 이유...재판부 구인장 발부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의 첫 재판에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6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광원) 심리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첫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 A씨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유를 모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기소된 B(33)씨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이 길어질 경우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과 함께 대전으로 달아났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2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보훈단체들,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시위 전격 중단

광주시 보훈사업에 협조키로

광주 보훈단체들이 1년 동안 광주시청 앞에서 벌여온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시위를 전격 중단한다.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광주시의 보훈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7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

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광복회) 광주시지부는 "지난 5일 광주시와 합의를 이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 집회를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광주시에서 정율성 생가 터 외에는 별도의 기념 공간을 마련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훈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보훈단체 측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난 35년간 중앙정부가 국익을 위해 주도한 사업이며,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이용해 불필요한 이념 갈등과 분열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7개 보훈단체는 광주시와 함께 보훈사업과 유공자 예우, 정신선양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담배소비세 일몰 2년 연장 추진...교육청 한숨 돌리나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40대 에이즈 확진자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

"피임도구 사용하면 전염성 낮을 거라 생각해 여중생과 관계"

40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면 전염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여중생과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질병의 전염성이 크지 않나"고 묻자 A씨는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

다. 피임도구를 사용해 전염성이 낮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에이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씨는 7월 28일 성매매를 대가로 여중생에게 5만원과 담배 두 갑을 주고 2일 뒤인 30일에도 여중생을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20일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신소장품전
Exhibition of New Collections

남원南原에서 In Namwon

2024. 9. 3. TUE - 2025. 1. 12. SUN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557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함파로길 65-14
063-620-5660

관람시간 10:00~18:00
전시해설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입장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그 다음 평일이 휴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NAMWON CITY KIMBYUNGJUNG ART MUSEUM